

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16호

8-9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실만한 물가

“사실 우리는 혈기에 든 병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에 든 병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학자들만 그런가.
신앙인들도 심각하지.

그 중에서도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함석헌 선생님이 그러셨지..

‘꽃이 아무리 피어도 수정이 못 되면 열매를 못 맺듯이
전체의 뜻으로 수정이 못된 마음은 쓸레 마음이다.
젊음은 전체의 위대한 영으로 수정이 돼야 한다’.

나는 영성의 깊이간 결국 ‘전체와의 관련성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 아닌가 싶어”.

“전체의 뜻으로 수정된 마음이라~ 바로 그거구나.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정념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참 사랑이라며.
그렇다면 진실은 책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곳,
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들에게만 깃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CONTENTS

2024년 8 - 9월호

04 이달의 말씀

연동교회 130주년을 바라보며 김주용 위임목사

06 특집-YD선교비전트립

더 넓은 세상에서 만난 게일 목사와 나의 소명

12 130주년 기념사업 현황

제9회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130인 엮임 성경필사

연못골 광장

16 1018예수사랑 “할아버지!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배은지 성도(초등부 4학년)

17 2030새벽이슬 하나님의 집에 첫 발을 디디다 김영진 성도(하이청년부)

18 4050광장 ‘오병이어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 임선숙 집사(응암역촌구역)

19 살며생각하며 능소화 김재순 은퇴권사(중구구역)

청년광장

20 Hi청년부 무더위를 이긴 뜨거운 하이청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

22 그리스도인의 영화(드라마) 바라보기(4) 인간실격 김윤기 목사

24 연동 Before & After (5) 역대 교회 창립 기념

26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2) 교회: 민주적 교회 운영과 교회의 건전한 거버넌스

28 연동 북하우스(16)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 맞출 때

29 함께 부르는 찬양(16)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30 칭찬합니다(12) 박중서 장로님을 칭찬합니다!

31 10, 11월 행사안내

선교

- 32 페루 - 겨울성경학교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
부르키나파소 - Être et Avoir en Jesus Christ 학교 완공 김경남, 박소현 선교사
스위스 - 비전트립 김명환, 권선중 선교사
영국 - 로즈마리 워 여사님 댁 방문 송요한, 이풀잎 선교사
콜롬비아 - 꿈들의 집 박재현, 정은실 선교사
태국 - 이주민을 위한 삼겹살 파티 서경석, 박형경 선교사
멕시코 - 비자 문제 해결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
- 34 중국어예배반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 여름 수련회** 백헌홍 성도(중국어예배반)
- 35 필리핀공동체 **망상 해변에서의 팀 빌딩과 세례식** Abel Raby 목사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 36 청소년주일학교
- 44 여름성경학교 & 여름사역
- 51 주니어 앙상블 여름캠프
- 52 제33회 전국 어린이대회
- 53 '에어바운스의 날 2' 행사 / 130주년 말씀 사경회 안내

연못골 사람들

- 54 새신자 어게인(16) 주님의 은혜로 일상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길 원해요!** 임현숙 성도 (은평구역)
- 56 신임목사 인터뷰 **"김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 58 **이종원 청년의 손글씨가 글꼴이 되었습니다**
- 59 지체들
- 68 새가족 소개
- 69 연동복지재단
- 70 신행 현황, 목양위원회
- 71 연동컬러링

표지설명

제목: 복음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다

크기: 1850x2580 재료: 이비스 페인트 제작일: 2024년 9월 9일(월)

작가: 박혜진 성도(고등부 2학년)

내용: 이 그림은 세계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배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 선교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문한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인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오직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연동교회 130주년을 바라보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가운데, “설령 고약한 이웃이 있더라도 그저 너는 더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야.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지. 남편이나 아내, 상사 부하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을 바꾸는 거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은 세속화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한 개혁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생텍쥐페리도 타인과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몇 년 전, 교회 앞에 있는 효제초등학교에 200여 명이 전교생으로 다니는데, 그 가운데 우리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학생이 5명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사택에 사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학교의 학생들 중 단 5%도 주일학교 학생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가? 회개와 반성과 함께 곧바로 잘못을 되돌이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 앞 전도 및 어린이 경제교실, 어린이 페스타 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바뀌자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세상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면 벌써 지루하고 고루한 곳이라는 인식이 세상에 팽배합니다. 젊은 세대, 특별히 어린이들은 그보다 더욱 직설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튜브보다 재미없어.’

유튜브보다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 체면, 선교적 관습, 전도의 옛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결코 천국과 세상에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경제’와 ‘돈’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



김주용 위임목사

른들보다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조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배타적인 생각만을 적용하지 말고 더욱 폭넓고 깊은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적 물질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에 ‘어린이 경제 교실’을 오픈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불러모았고, 매우 영향력이 있는 어린이 강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페스타도 이와 같은 의미로 더욱 눈높이와 교회 담장을 낮추고자 하는 뜻을 반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섬기고자 했으면, 시원하게 우리의 벽을 낮추고 더욱 아래로 내려가 그들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이번 130주년 사업들 안에 깃든 정신은 “130주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입니다. 130년 동안 한곳에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낸 것은 물론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지만,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즐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고 같이 품을 때 더욱 오래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위임목사로서 연동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대가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는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교회!

이번 2024년 9~10월은 여러 은혜를 나누는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각 세대별 청년, 어린이, 청소년, 장년 페스타와 이야기가 있는 마태수난곡 콘서트는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게일문화상과 송암 봉사상은 시대의 인플루언서들을 격려하는 상이 될 것이고, 130주년을 위해 특별봉헌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그 중 십일조를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에 후원하여, 물질적 헌신으로 실질적인 은혜 나눔도 시행할 것입니다. 130주년 특별새벽기도회와 신앙사경회(조정민 목사/ 베이직교회), 게일학술세미나, 통일학술세미나, 130주년 창립주일 기념예배 및 음악회 등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것이고, 그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나눌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보아, 내가 밀알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만난 게일 목사와 나의 소명



사진: 게일 목사 생가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
기획 및 진행: 박현미 편집장/ 자료 제공: YD선교비전트립팀

신앙 여정에 큰 밑거름이 될 소중한 경험

게일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캐나다 토론토로 떠난 우리는 게일 목사님의 생가와 모교회를 보며 청소년 시절의 게일 목사님을 생각했다. 게일 목사님은 그가 뛰어 놀았던 마당에서 먼 훗날 자신이 섬겼던 교회의 청소년들이 뛰어 놀 거라고 생각했을까? 게일 목사님의 삶에 대한 귀한 영감을 가슴 깊이 새기며, 특별히 성경 번역을 통하여 게일 목사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여행 중 나이아가라 폭포와 왓킨스 글렌 국립공원의 장엄한 모습을 보며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랭카스터에서 관람한 '다니엘' 성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시대에 맞게 재해석되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더불어 성경박물관에서는 오늘날 우리 손에 성경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때로는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계의 중심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특별히 뉴욕에서는 라파예트 에비뉴 장로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게일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다. 우리는 특별 찬양을 드리고 보수 공사 중인 교회에 봉헌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뿌리와 선교사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값진 경험은 연동의 선후배가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 우리 교회와 각자의 신앙 여정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계대운 목사(YD선교비전트립 지도 목사)



게일박물관 견학(유영식 목사 자택)



게일 목사 생가 방문



토론토대학에서 게일 목사 강의(강신원 집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방문

일정과 주요 활동

일정: 7월 22일(월)~8월 1일(목)

주요 활동:

날짜	장소	주요 활동
7/22(월)	인천/토론토	캐나다 토론토 대학 탐방
7/23(화)	토론토	게일 목사 모교회 방문, 유영식 교수 특강, 게일 목사 생가 방문, 게일 박물관(유영식 교수 덕) 견학
7/24(수)	나이아가라/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 관람, 미국 입국
7/25(목)	랭카스터	왓킨스 글렌 주립공원 트레킹
7/26(금)	랭카스터/워싱턴D.C.	뮤지컬 '다니엘' 관람, 워싱턴 D.C.로 이동
7/27(토)	뉴욕	링컨 기념관 방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방문, 성경박물관 관람, 자연사박물관 견학
7/28(주일)	뉴욕	라파에트 에비뉴 장로교회 주일예배 참석,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탑승, 원월드트레이드센터 전망대 관람, 월스트리트 탐방
7/29(월)	뉴욕	콜롬비아 대학 탐방, 센트럴파크 산책,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관람, 뉴욕현대미술관(MOMA) 견학, 타임스퀘어 광장 방문
7/30(화)	뉴욕	UN 본부 견학
7/31(수)	뉴욕	JFK 국제공항 출발
8/1(목)	인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참가자 명단>(인솔자 5명, 학생 26명, 총 31명)

*지도: 계대윤 목사, 단장: 방영민 장로, 학생인솔: 전소망 전도사, 김선미 권사, 이규성 안수집사

*참여학생: 김태연, 박천명, 이종영, 김나연, 김예빈, 김에서, 박성빈, 변시은, 성채은, 정유나, 최가은, 최준서(이상 중등부)/ 강하늘, 김가을, 김예찬, 유재윤, 이주은, 최승민, 김연후, 김울, 김태원, 박혜진, 육기돈, 홍진희, 김예나 (이상 고등부)/ 박성진(청년부)

<현지에서 도움주신 분들>

1. 토론토대학교 투어 및 강의: 강신원 집사(토론토대학 박사 과정, 속초중앙교회)
2. 게일 목사 관련 강의 및 유품 해설: 유영식 목사(토론토대학 교수 역임)
3. 라파에트 에비뉴 장로교회 소통 및 통역: 방성우 형제(미국 뉴욕 거주)

<소감문>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길고도 짧았던 선교비전트립 여정 동안 힘들기도 하였지만 또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과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제게 이번 선교비전트립은 게일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캐나다에서 먼 조건의 땅까지 선교를 위해 발걸음했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라파예트 에비뉴 장로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며 낯설지만 친숙한 교회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송 후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립 박수를 쳐주셨는데 이 장면은 너무 소중해서 평생 간직하고 싶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며 따뜻한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곳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극히 일부였던 것을 깨닫고, 저 또한 극히 작은 존재임을 깨달았으며, 미래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이 작은 몸을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비전트립을 통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비전을 키우고 모두가 한층 성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비전트립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예나 성도
(고등부 3학년, YD
선교비전트립 팀장)



선교비전트립을 마치고 한 줄 소감

- *김태연(중2): 미국과 캐나다를 다니며 게일 선교사님의 삶을 알게 되어 게일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한 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여행으로 저의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천명(중2): 재미있었어요
- *이종명(중2): 미국과 캐나다를 가면서 믿음을 더 많이 키웠고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아주 잘 알게 되었다. 너무 재밌고 신 나는 여행이었다.
- *김나연(중3): 10일 동안 너무 행복했고 재밌었습니다.
- *김예빈(중3):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행하면서 게일 선교사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덕분에 진로와 관련 해서도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김예서(중3): 비전트립은 게일 목사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덕분에 우정을 나누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박성빈(중3): 재밌었고 게일 목사님의 그 비전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아서 뿌듯한 비전트립이었습니다.
- *변시온(중3):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 게일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연동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 *성채은(중3): 이번 여행을 통해 게일 선교사님을 통한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 *정유나(중3): 게일 선교사님의 삶의 방향을 알아보고 외국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니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 *최가은(중3): 선교비전트립에 가서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고 게일 목사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가져서 좋았어요
- *최준서(중3): 첫 여행인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재미있었어요.
- *강하늘(고1):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게일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게일 목사님에 대해 알아가며 제 인생의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가을(고1): 선교비전트립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 *김예찬(고1): 이번 여행을 통하여 팀워크가 무엇인지 배웠고 단체 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윤재윤(고1): 평소에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게일 선교사님의 영향과 그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넓은



성경박물관 관람



라파엘트 에비뉴 장로교회에서 특송

세상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이주은(고1)**: 게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직접 방문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 ***최승민(고2)**: 선교 비전트립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러 장소들을 방문하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으며 이번 여행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 ***김연후(고2)**: 이번 여행을 통해서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남기고 여러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 ***김울(고2)**: 이번 비전트립으로 게일 선교사님이 연동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지 배웠어요. 앞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 ***김태원(고2)**: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고, 항상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멋진 여행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연동의 뿌리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혜진(고2)**: 지난 10일 동안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 ***육기돈(고2)**: 이번 비전트립 동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고 매 순간이 재미있었어요.
- ***홍진희(고2)**: 미국과 캐나다 선교비전트립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며 하나님을 더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예나(고3)**: 이번에 미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며 우리 한국교회와 비슷하고 다른 점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와 시작을 알 수 있었다.
- ***박성진(청년부)**: 캐나다와 미국의 여정은 저의 견문을 더 넓혀 주었습니다.

- ***이규성 안수집사**: 세상에서 착한 목자, 착한 성도, 착한 청소년이 됩시다!!! 착한 목자였던 게일처럼!
- ***김선미 권사**: 게일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숭고한 사랑을 받은 우리 연동인들 은혜입니다!!
- ***방영민 장로**: 게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고맙습니다.
- ***전소망 전도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고 풍성한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학생들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계대운 목사**: 이번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9회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사무국_위원회_내부회의



접수된 지원서류 보관사진(우편접수를 포함)

1월 28일(주일) 사무국 단독방 개설과 함께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의 개요와 설명 및 각 담당별 업무 분장이 공유되었다. 2월 3일(주일) 게일문화상-송암봉사상 심사위원회와 사무국 간에 첫 간담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사무국 내 각 분과별로 섬기는 자들이 모두 모여 인사를 하였고,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전체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무국 업무는 크게 ① 후보자 선정 담당(정운석, 진상협), ② 홍보 담당(한상정, 박예송) ③ 시상식 담당(송재호, 남연숙), ④ 심사위원회 담당(이학주, 김동욱)의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의 심사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 두 분 중에서 위원장을 맡고, 각 심사위원회별로 내부 심사위원을 두었다.

제8회 시상이 2014년에 마지막으로 있던 후 재개되는 상이라 10년의 공백을 채워가며 활동하게 되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주목할 부분은 제9회 게일문화상-송암봉사상 위원회-사무국의 구성원들은 30대부터 60대를 아우르는 인적 구성을 함으로써 지난 과거와 큰 차이가 있으며, 사무국 내 각 분과별로 언론사 광고와 SNS 활용 외에도 직접 후보자검토대상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게일문화상에는 9곳의 지원서가, 송암봉사상에는 13곳의 지원서가 접수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9월 8일(주일) 오전에는 사무국에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된 모든 서류를 자유로이 열람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내부 심사위원과 사무국 봉사자가 함께 접수된 서류에 대해 합평을 실시하였다. 9월 12일(목)에는 위원장(김주용 위임목사)과 외부 심사위원 및 내부 심사위원이 전부 모여 합평을 하고, 각 심사위원회별로 나누어 세부적인 심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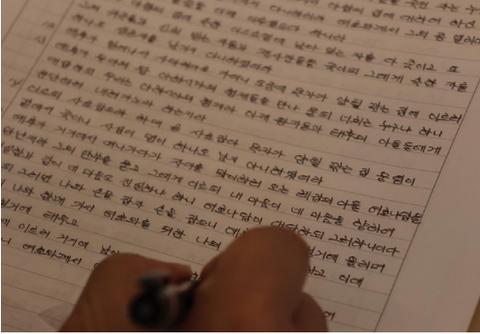
향후 2029년에 있을 제10회에서는 과거 경험의 자료가 축적되어 활용 될 수 있도록 회의록 및 주요 의사결정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문서로 남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교인들 중에서 1회~8회까지의 심사와 시상 과정에 관련된 서지 자료나 구술 자료에 상관없이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향후 사료로 남겨 후대에 활용케 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상협 집사(사무국 후보자 선정 담당)



지원서류_위원회-사무국 열람

130인 역을 성경필사



9월 1일(주일)은 데바레가 성경필사 최종 접수일이었고, 9월 9일(주일) 현재 총 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541명이 완료했고, 259명이 감수 받는 중이다.

연못골 6-7월호에 실렸던 신청자보다 63명이 추가되었고, 64명이 추가 완료했으나 아직 한 번도 제출하지 못한 신청자들도 있다.

대부분의 반출 원인은 띄어쓰기와 누락이다. 성경필사 초기접수 때는 형식 오류가 많았으나 점점 필사 오류가 줄며 완료자 중에는 더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셨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응원을 보낸다.

감수위원들은 교회에 매일 나오고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밤 11시까지 감수하고 있다.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10월 20일(주일)에 진행될 필사성경 헌정식에 차질이 생길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감수팀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성경필사를 제출하며 쓰는 동안에 받은 감동과 간증을 전해주는 참여자들의 나눔에 큰 힘을 얻고, 필사성경 제본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최선을 다해본다.

/ 이지원 권사(성경필사 감수위원)

구분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합계
필사신청자	173	154	152	158	163	800
완료자	111	115	108	124	83	541
감수중	62	39	44	34	80	259

(2024.09.09. 현재)



종로구 김상옥로 37
서울특별시
대원민구

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연동교회 창립130주년 기념행사

청년 YD페스타 | 9.7(토) 15:00
범키 & 송지은

어린이 YD페스타 | 9.21(토) 13:00
응알스극단 공연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 10.2(수) 19:00
마태수난곡 (해설:피아니스트 장미경)

청소년 YD페스타 | 10.5(토) 17:00
마커스워십 찬양집회

게일학술세미나 | 10.6(주일) 15:00
안교성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130주년 특별새벽기도회 | 10.7(월)-12일(토)

통일학술세미나 | 10.13(주일) 15:00
정진호 교수(포항공과대학교)

130주년 말씀사경회 | 10.16(수)-18(금)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장년 YD페스타 | 10.19(토) 14:00
남진 장로 콘서트

창립130주년 기념음악예배 | 10.20(주일) 15:00

게일문화상·송암봉사상 시상 | 10.20(주일) 15:00

130인연음 필사성경 헌정식 | 10.20(주일) 15:00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1894~2024

130



9월 첫째 주

2024년 하반기 YBS 일정

제목	담당	내용	일시	비고
연동실버 아카데미	박점분 목사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품위 있는 노년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	매주 수요일 10-12시	70세 이상
전도폭발	오한빛 목사	전도의 동기부여를 통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재발견하며 현장실습 위주의 관계전도 훈련으로 생활화된 전도자를 양육한다.	매주 목요일 10-12시	오프라인
빌립보서	박주안 목사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하여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고, 빌립보서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탐구한다.	매주 목요일 유튜브 업로드	온라인
데바레카 성경통독	계대운 목사	진행중인 데바레카 성경통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경공부를 실시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7:10	오프라인
크리스천 매뉴얼	김환 목사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우고 신앙기본기가 없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단단한 기초를 세우게 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7:10	오프라인
열왕기하	박요한 목사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열왕기하와 예언서를 연결하여 성경이해를 풍성하게 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7:10	오프라인
환경선교사	유미호 센터장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위한 환경선교사 과정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오프라인
제자양육	김윤기 목사	청년부 제자양육을 대그룹반과 소그룹반으로 운영하여 그리스도의 제자화	화 오후 7:00-9:00 수 오후 5:00-6:30 목 오후 6:30-8:00	청년부 한정

“할아버지!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배은지 성도
(초등부 4학년)

저는 원래 미국 보스턴에서 거주하는데, 이번에 할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두 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할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다니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여성성경학교를 가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했어도, 저는 가서 놀 것도 없고, 침대가 없으면 어떡하지? 심심하면 어떡하지? 등등 많은 고민이 머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도 친구들과 신나게 놀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성성경학교의 날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강화 수양관에 도착해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게임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수영장에서 놀았을 때예요! 튜브 타면서 장난치고, 선생님들 빠뜨리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파 라디오도 역시 꿀 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이에요! 아무튼, 간식도 주고, 달란트라는 마일리지 같은 걸로 간식을 추가로 사먹었습니다. 밤에는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2박 3일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할아버지가 위독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제가 올 때까지 버텨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부터 할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께 용기와 힘을 주고 싶어서 여성성경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출15:26)

저는 엄마가 할머니 집으로 보내서 할 수 없이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더 편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많이 슬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 주셔서 3일간의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투병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손녀가 될게요!”

*편집자주: 배은지 학생의 할아버지는 지난 7월 29일(월) 별세하신 김중식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첫 발을 디딘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29명의 청년이 열흘간 학업과 직장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자리와 식사를 포기한 것일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꼬박 3일을 이동해,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이름 모를 산속 마을로 들어간 것일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빗속에서도 춤을 추며, 울고 웃으며 난생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행복을 느낀 것일까.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선교의 주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김태환 선교사님께서 선교 기간 동안 한 가지 질문에 하나님께 각자만의 대답을 듣는 과제를 주셨다. "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가?"



김영진 성도
(하이청년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도, 행위로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다. 여전히 죄짓고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마땅한 리액션이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며 크고 작은 문을 열고 분향을 향해 가까이 나아갔다고 생각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그 문들이 실외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만 넘었을 뿐 아직도 마당에, 밖에 있던 것이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선교, 마지막 날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집에, 실내에 첫 발을 디딘 느낌이다.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시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나밖에 모르던 마음 깊은 곳에 난생처음 이웃 사랑이 닿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복음을 처음 듣고 영접한 것과 같은 충격과 자기 부인이었다. 무서울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작은 내 마음에 부어지니 경이롭고 두렵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그간 기도했던 내용들이 기억나며 죄송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제목은 분명했다. "돈과 성이 주신 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동역하라." 앞으로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정, 재능과 마음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지각이 바뀌는 시간이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독감과 대상포진으로 한 달을 누워 있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아픔을 통해 이웃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성을 알게 하셨다. 전심으로 기도해 주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사랑을 느끼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빛은 아름답지만, 빛만 있다면 아름다울 수 없다. 어두움이 빛을 빛 되게 한다. 명암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말할 수 없이 아픈 중에도 영이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며 육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광의 시간이었다.

‘오병이어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



임선숙 집사
(응암역총구역)

주방봉사하시는 분들은, **첫째, 얼굴이 참 평안해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봉사가 그러하듯이 주방봉사 역시 아무 대가 없이 덥고, 습하고,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 힘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봉사하시는 분들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배식하실 때는 교인분들과 눈맞춤을 하시거나, 종종 안부를 묻기도 하시고, 식사를 마친 테이블은 소독제로 깨끗이 청소해주시는데요, 교인분들은 식사를 하시며 봉사자들의 평안함을 그대로 전달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늘 앞장서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로 시작되는 주일 주방봉사는 1, 2, 3부 예배시간 후 교인들이 오셨을 때 기다리시지 않도록 미리 밥, 국, 반찬 배식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기본이고, 배식 후 식탁정리, 설거지까지 각자 해야 할 일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기에 저 같이 구역에서 잠시 일하러 온 사람은 봉사할 인원도 많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쉴 때도 있었고, 그냥 밥만 맛있게 먹은 경우도 있었답니다.^^;

셋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일례로 미역국에 들어가는 살코기는 전날부터 물에 담귀 핏기를 제거하고, 애벌로 삶은 후, 기름을 제거하고, 다음 날 다시 한번 더 삶은 후, 먹기 좋게 분리하면서 혹시 남은 기름까지 또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미역국 만들 때 보다 더 정성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정도이기에 교인분들께서는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 고기 미역국을 드시게 되는 것이지요. 또 모든 그릇들은 애벌 설거지 후 식기세척기에서 한번 더 세척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수저 설거지를 하시던 권사님께서는 특히 수저는(!) 우리 교인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더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 하셨기에 제가 집에서 보다 더 열심히(!)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봉사자를 먼저 배려해줍니다.

친교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 어른이신데 잠깐 봉사하러 간 저 같은 사람에겐 어색하지 않게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일거리도 나눠주시며, 잠시 여유시간이 생기면 늘 쉴 것을 권해주셨고, 제가 주방봉사하러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밥 먹었어??’ 일 정도로 봉사자를 먼저 챙겨봐주시니 봉사하러 갔다가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병이어의 집에서 교인들에게 정성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봉사자분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보면서, 베푸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봉사자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깨닫게 되었으며 오병이어의 집에서 준비해주시는 점심은 천 원으로 살 수 있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바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봉사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귀한 선물!’ 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살롬!

능소화

포근한 봄바람이 갖가지
 꽃들을 물고 와
 한바탕 향연을 마치면
 7월의 담장은 주홍빛으로 물든다.
 이글대는 태양의 열기에
 혼자서는 힘겨워
 여럿이 손을 잡고 오르는
 절실한 숙명
 능소화 너는 왜 다 비껴가는
 이때 꽃을 피우는가
 습한 갈증을 작은 이슬로 채우며
 아침마다 입을 크게 노래함은
 서로의 힘이 되련다
 주홍빛 꽃비에 바람 한 점 슬쩍
 꽃잎을 만지고 지나간다
 내 마음에 호롱불 켜고 너의
 인내를 닦고 싶어
 오늘도 난 네 발 앞에서 있다



김재순 은퇴권사
(중구구역)

(사진:김재순 은퇴권사)

무더위를 이긴 뜨거운 하이청년들

| CTS뉴스에도 소개 된 하이택시 심방



김윤기 목사, 박주안 목사는 7월 직장인 하이택시 심방에 이어, 8월 1일(목)에도 심방을 이어갔다.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퇴근길에 맞춰 귀가를 함께하며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이택시 심방은 청년부에서 유튜브로도 공유해 다른 기독 직장인 청년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이번 심방은 CTS뉴스에도 이색심방으로 보도되어 하이청년부의 다양한 심방과 교제의 방식이 소개되었다. (8월 19일 CTS뉴스, “연동교회, 청년 직장인 위한 이색 심방 - 퇴근길엔 ‘하이 택시’”)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 애프터 회식



8월 3일(토) 오후 6시 애슐리 키즈 대학로점에서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의 애프터 회식이 있었다. 선교 일정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선교팀원들이 모여 선교 이후의 삶에 대해 나누고 다가올 선교보고예배를 공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며 서로의 최근 기도제목 또한 나눌 수 있었던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강화수양관에서 열린 여름수련회



8월 15일(목)~17일(토) “연동교회가 한 그루 나무라면?” (에스겔 17:22-24)을 주제로 강화수양관에서 Hi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열었다. 첫날에는 간단한 개회예배와 조별게임을 한 뒤, 이성희 원로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김윤기 목사의 “내가 한 그루 나무라면?” 특강과 시원한 물놀이 시간, 저녁에는 김주용 위임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특별히 수련회 기간 동안 아침경건회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신 연동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다. 17일, 폐회예배로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안전히 마치고 연동교회로 돌아왔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 러브릿지 온(溫) 도시락 봉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창신동 이웃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도시락 봉사 러브릿지 온(溫)이 7월 27일(토), 8월 31일(토)에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장마와 무더위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청년부원들이 함께 의지하며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힘썼다. 러브릿지 온(溫)이 1월부터 시작하여 어느덧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 '연동 청년 페스타 130' 공연



'연동 청년 페스타 130'이 9월 7일(토)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청년 페스타 공연으로 범키와 송지은이 간증과 찬양을 선보였고, 체험형 부스로 음악치료, 종리스찬, 퍼스널컬러 진단, 책갈피 제작, 편지쓰기, 포도 부스 등을 운영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연동교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신 덕분에 청년 페스타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다. 청년 페스타를 즐기러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청년 페스타가 됐기를 소망한다.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예배



9월 8일(주일) 오후 3시 HI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이 선교보고예배를 드렸다. 김영진 선교팀장의 지도로 시작해서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사역을 보여주는 선교 영상 관람 후 선교팀 특송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를 찬양했다. 이후로는 오오셉 형제와 김찬미 자매가 선교에서 받은 은혜와 체험을 고백하는 간증을 했고, 특별순서로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공연했던 성유경 외 5명이 부채춤, 홍혜림 외 7명이 K-POP & WORSHIP을 선보이며 선교보고예배를 마무리했다.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연동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팀원들 되길 기도한다.

인간실격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30)

- 제작: 백창주, 박준서, 조준형
- 연출: 허진호, 박홍수
- 극본: 김지혜



딸에게 “자식은 부모보다 잘 살아야 맞는 거지...” 하고 말하는 아버지

장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커다란 수치의 증표로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 외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 됨의 음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21년 가을 JTBC에서 방영된 <인간실격>이라는 드라마는 바로 이러한 인생들의 음영을 드러내고 있다. 연기파 배우들이 여럿 등장하고, 개별적 스토리라인도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네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경에 어느덧 푹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요즘에는 전개가 빠르지 않으면 채널을 돌리기 일쑤인데, 오히려 느리게 감상하고픈 고집이 생기는 작품이랄까. 그렇게 한 회 한 회 천천히 몰입했다.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울면서 보면 오히려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것 같다. 독백들과 대사들, 눈빛들과 눈물들, 음악, 그리고 실격이라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그 안에 허우적대는 나도 있었던 것 같다. 부족한 잠을 채우려고 몇 회씩 끊어 보다가 전원을 끄면, 한참 동안 불이 꺼진 거실에서 검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계속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던 순간들이 기억난다. 동틀녘에 대한 불안함과 눈을 감고 더 깊은 어둠에 몸을 맡겨야 하는 피로함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먼저 실격이라는 단어를 숙고해 본다. 격식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자격을 잃은 것을 뜻하는 이 말을 과연 인간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 ‘아, 실격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구나.’ 스스로에게 너는 실격이야 하고 말해도 된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중요했던 것 같다.

다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자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는 용기, 이만 원을 채우기 위해 살지만 사천 원이 한계인 인생의 파രി함을 보았다. 자식은 언제까지나 부모의 용기를 쉽사리



김윤기 목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걸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손 내밀지 못하는 현실이 다시 나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힘겹게, 아주 힘겹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사랑과 희생이라는 두 단어는 단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이 둘은 패러독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할 뿐인데, 누군가의 사랑을 희생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랑에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것일지도...

칼뱅은 말한다:

-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들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보다
- 그에게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죄에게 노예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 그의 빛을 받기 위해 우리가 눈이 멀었음을 인정하는 것보다
- 그가 우리의 발을 펴시기 위해 우리가 절름발이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 그의 붙잡아 주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허약함을 인정하는 것보다
- 그리고 오직 그 홀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 우리가 헛된 영광을 위한 온갖 동기를 내버리는 것보다
- 무엇이 더 믿음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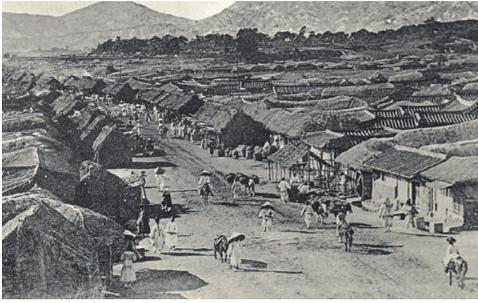
“누가” 실격인가가 아니라 “누구나” 실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것 같다. 그 사실 앞에 솔직해지고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진실된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별이 될 수도 있다는 어렴풋한 희망을 보게 된 작품 <인간실격>—나에게 있어서 이 작품은 실격(失格)이 아닌 입격(入格)이라 말하고 싶다.

마지막 회를 마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다. “아버지, 골방에 엎드려 우는 것보다 밤하늘을 보며 우는 것이 어쩌면 제게는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똑똑 떨어뜨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기보다는, 고여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고 뺨에서 마르게 하겠습니다. 별빛으로 가득한 하늘이 그립습니다.”

역대 교회 창립 기념

1894년 선교사 이길함(Graham Lee) 목사와 서상륜 조사를 중심으로 최초의 예배처소(현재 연동교회 입구 풋돌 자리)인 초가에서 예배를 드렸던 연동교회는 올해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130년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이번 창립행사의 주제를 되새기며 그간의 교회 창립 기념 행사를 정리하고 변천을 알아보았다. / 오수희 기자

창립	연도	주요 행사 내용
40주년	1934	전도사업, 부흥사경회(주기철목사), 기념식(수건 선물, 다과회, 축하 음악 예배) 연동교회약사(40년) 발간
60주년	1954	다섯 번째 교회당 봉헌, 연동교회약사(60년) 발간
70주년	1964	기념식(기념수첩과 떡 한봉지), 기념사경회, 70인 어부회 결성, 목사관 신축
80주년	1974	기념예배, 전사회, 신앙부흥회, 음악예배, 바자회 및 전도상 수여, 체육대회, 학술강좌, 심포지엄, 창작예배, 계일문화상과 송암봉사상 제정, 연동교회80년사 발간
90주년	1984	기념행사(의료봉사, 바자회, 주민 초대잔치, 문화의 밤, 교육대회 등) 및 예배, 기념 음악예배, 연동사료실 개관, 중요 소장품의 영인본 제작, 연동교회90년사 발간, 계일 목사의 딸과 손녀 및 파이프 오르간 기증자 스메터스 목사 부부 초청
100주년	1994	장로신학대학교에 학위논문실 봉정, 목회교육연구원 보조, 연동창작가정관 개관, 연동전교인 운동회, 연동미술인초대전, 교육사회관 증축, 사경회, 우간다와 사할린 선교보고, 교회안내 책자 발간(연못골 100주년기념 특집호 등), 지원교회 교역자 초청 위로회, 바자회, 르완다 난민 구호, 기념예배, 꽃꽂이 전사회, 연동사료실 재개관, 음악회, 연동교회100년사 발간
110주년	2004	기념예배, 연동동산 백합의 돌 봉헌, 비전 선포문 발표, 전교인체육대회, 복지문화관 가나의 집 신축(2005년 봉헌), 기념우표발행, 에베에셀의 하나님 찬양집회, 신앙사경회, 파이프 오르간 및 기념음악회, 초기 선교사 및 역대목사 묘소 방문, 신앙성경 쓰기, 미술과 음악의 연동축제,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 110년사 발간
120주년	2014	기념예배, 강화수양관 증개축, 계일목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연동교회 생활규범 제정, 뮤지컬 카이로스 120(감독 이성은),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초청공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본당과 교육사회관 개축 및 교역자 사택 신축, 기념세미나, 연동교회120년사 발간
130주년	2024	이웃과 함께하는 “YD 페스타”(청년, 어린이, 청소년, 장년 대상),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계일학술세미나, 특별새벽기도회, 통일학술세미나, 말씀사경회, 기념음악예배, 계일문화상과 송암봉사상 시상, 130인 엮음 성경필사



연동교회 첫번째 예배처소 주변의 민가, 1894년



교회창립 40주년 기념예배(경신학교 강당), 1934년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교회당 헌당식, 1954년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체육대회 및 친목 야유회, 1974년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1994년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뮤지컬 '카이로스',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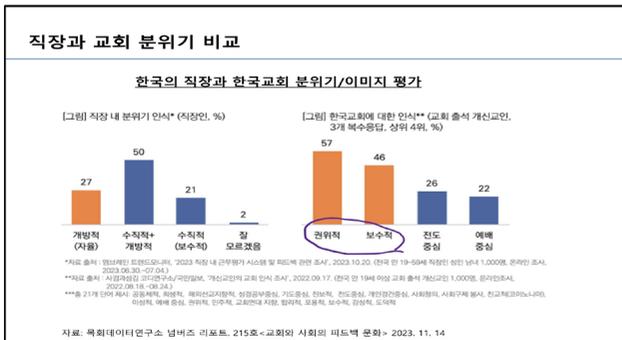


교회 창립 130주년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YD 페스타' 현수막이 부착된 연동교회 전경,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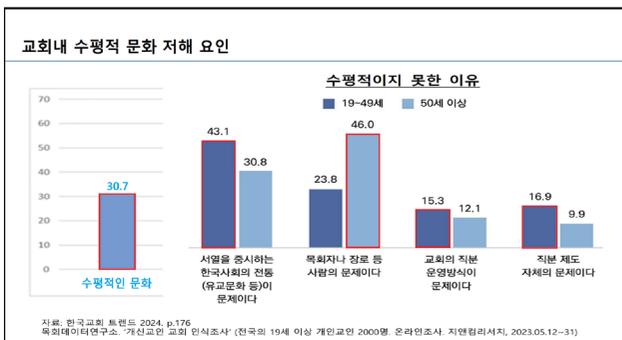
교회: 민주적 교회 운영과 교회의 건전한 거버넌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연속기획포럼 그 두 번째는 “교회” 부문으로, “교회 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를 주제로 열렸다 (첫 번째 주제 “신앙”은 연못골 6-7월호 22p 참고). 첫번째 발제자는 ‘개혁연대의 제도개혁 회고’로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하 개혁연대) 백종국 교무이 발표하였다. 2002년에 출발한 개혁연대는 ‘애용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어느 시대, 어느 조직에도 있었던 교회의 악덕에 대해 말한다. 한국교회의 외형성장 안에 있는 한국교회의 특징적 악덕 4가지로 무지, 교만, 탐욕, 배신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는 접근법으로 첫째 현안대책이라 할 수 있는 성명서 발표, 교인고통 상담을 위해 ‘교회문제상담소’를 만들었고, 교회총회 창단운동과 교회세습 반대운동을 하였다. 둘째 제도개혁으로 모범정관을 소개하고 교회재정 건강성운동, 올바른 목회자 청빙, 교회 내 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위원회 조직 및 교회들의 협조를 구해 기독교반성폭력센터도 만들었다. 셋째 의식개혁으로 교회개혁아카데미, 교회개혁제자훈련, 열린강좌, 주요 이슈에 따라 공개포럼을 조직(예: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함으로써 교회에서 발견되는 장애물, 즉 악덕들을 복음전파의 장애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 초석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모범정관을 통해 교회의 주권, 양심의 자유, 복음적 분어의 3대 기초원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①직분의 평등성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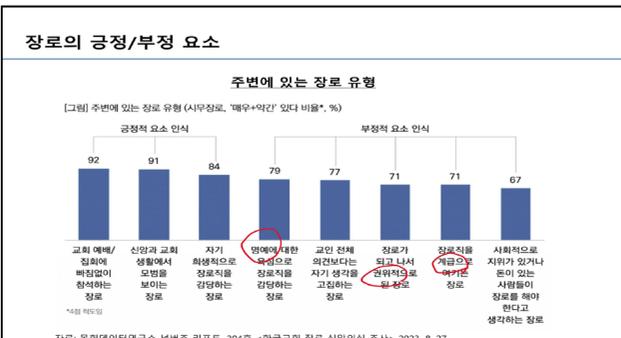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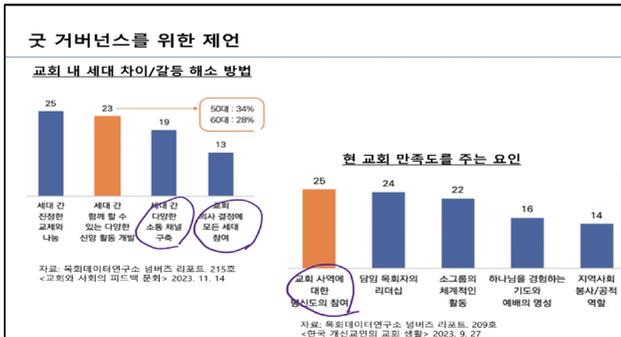


의사결정의 민주화 ③재정투명성 보장을 강조하였고, 지적인 부분은 각 교단에서 헌법이라 불리는 규정을 가졌지만, 이는 주로 교회 지도부의 기득권을 보장하느냐에 초점을 둔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나아가 만인 사제정신의 구체화로 ‘민주적 교회운영’을 말하였다. 회의체의 의사 의결 정족수 확인 및 회의체운영의 독점타파를 선언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부분임에도 교회에서는 참 석자들로만 총회를 추진한다. 어느 조직이든 의사정족수라 함은 그 조직 회원의 과반수 또는 삼분의 이인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는 참석자로 의 사정족수를 정한다. 이는 모범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증이다.



두번째 발제자는 '한국교회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류지성 고려대 교수가 한국교회 거버넌스의 현주소와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한국교회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한국사회가 수평적 조직문화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열린 소통환경을 열었으나, 유독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의 문화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였다. 의사결정에는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해 헌신하게 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성도들이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하였다.

한국교회의 문제 원인 진단에서는 ①직분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②지나친 담임 목회자 중심의 구조, ③한국교회 내에 계층/서열화 된 문화를 지적한다.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으로는 ①성령님의 인도하심 ②당회의 민주적 운영과 역할 재정립 ③직분자의 올바른 역할 인식과 교육 ④교인의 전문성 활용 ⑤여성과 청년 세대의 참여 기회 제공 ⑥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소통 채널 ⑦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⑧건강한 정관을 강조하였다. / 진상협 기자



*유튜브에서 ep.2 '교회' 기획 포럼 영상보기

성서로 그림 읽기, 그림으로 성서 보기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 맞출 때

김학철 지음/비아/2022년 7월



성서로 그림 읽기, 그림으로 성서 보기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 맞출 때
김학철 지음



| 소개의 글

저자는 성서를 읽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각적 읽기'를 제안한다. 성경 본문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읽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성서화를 통해 다시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화가의 신학적 통찰이 담긴 성서화의 예술적 표현과 연계하여 성서가 주는 메시지의 깊이를 해석하고 있다. 또한, 신앙생활이 예술 작품처럼 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이를 통해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신앙-예술품'처럼 조형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성경을 예술과 함께 새롭게 읽는 방식을 통해 신앙적 질문들을 깊이 탐구하고, 그 답을 예술적 표현과 삶 속에서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 목차

여는 말/ 성서의 시각적 읽기, 그리고 신상으로 살아가기/ 인간됨과 창조 이야기/ 믿음의 손/ 소망의 발걸음/ 차마 못하는 마음과 정의/ 기적의 내면/ 기억의 윤리/ 사랑의 힘/ 기만의 비극/ 측은지심의 보행 -길 위의 예수-/ 나가는 말/ 보론(補論)

| 주요 내용 발췌

2,000여 년 이전에 기록된 성서의 구절을 붙들고, 그것을 자신의 혼과 영과 육으로 그려낸 화가의 그림을 찬찬히 살피면서 중요하지 않은 듯 뒤로 미뤄놓은 삶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잠깐이라도 머물러 보자. 영원에 관해 묻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겸손하게 나눌 때 우리는 더욱 인간다워지고, 그래서 하느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 많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질문, 그것도 영원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한 물음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14p)

야훼 하느님을 나타내는 신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선언을 배경으로 읽어야 한다. 인간이 하느님의 신상이니 그를 하느님 대하듯 존중해야지 다른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상을 따로 만들면 안 되니, 그것을 따로 둘 신전이 필요 없다. 이것은 하느님을 만나고, 그가 현현하는 신전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있는 모든 곳이 신전이라는 의미다. 그러니 애당초 성서는 온 세계를 신전으로, 모든 인간을 신상으로 선언하는 급진적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하느님의 아들, 곧 그분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신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몸이 신전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오감으로 체험하도록 살았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이들의 몸, 그리고 그 모임이 신전이 아닐 수 없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은 임마누엘의 신전이 된다.(33p)

/ 고현수 기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연동교회 유튜브 채널
 9월 1일 3부 예배 영상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트리니티밴드)'
 링크: <https://m.site.naver.com/1t1YD>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찬양은 장재원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2012년 웨이브서퍼 워십 1집에 수록되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한다. / 주태성 기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words & Music by 장재원

S S

G G2/B C G2/B Am7 C6/D G

전 능 하 신 - 오 리 주 하 - 나 - 님 에 게 - 능 지 못 - 하 시 는 - 일 - 전 혀 없 - 네 -

Dsus4 G G2/B C G/B Am7 C6/D G

광 대 하 신 - 오 리 주 하 - 나 - 님 에 게 - 모 든 나 라 - 모 든 족 - 속 - 경 - 배 하 - 네 -

Dsus4 G G/B C G/B

주 님 의 높 고 위 대 하 - 심 - 을 - 내 영 혼 이

Am7 C6/D G Dsus4 G

--- 내 영 혼 이 - 찬 양 해 - 찬 양 해 - 주 님 의 높 고

G/B C G/B Am7 C/D [1.G]

위 대 하 - 심 - 을 - 내 영 혼 이 --- 찬 양 - 하 - 네 -

2. G G2/B CM7

--- 산 과 시 - 내 와 - 세 상 모 - 든 만 - 물 - 아

G/B Am7 F Dsus4

--- 오 리 주 - 님 을 - 다 찬 - 양 하 - 여 라 -

Esus4 A A/C# D A/C#

주 님 의 높 고 위 대 하 - 심 - 을 - 내 영 혼 이

F#m7 D6/E A Esus4 A

--- 내 영 혼 이 - 찬 양 해 - 찬 양 해 - 주 님 의 높 고

A/C# D A/C# F#m7 D/E A

위 대 하 - 심 - 을 - 내 영 혼 이 --- 찬 양 하 - 네 -

박중서 장로님을 칭찬합니다!



“어느날 TV에서 RH-(알에이치 마이너스) 혈액을 긴급하게 구한다는 자막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에 시작된 첫 헌혈 이후 48년 동안 이어오다 얼마 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400회 축하를 받은 박중서 장로님의 혈액형도 RH-(B형)이다. 동양인들은 0.5%만 RH-형을 가졌기에 남일 같지 않은 마음으로 시간 닿을 때마다 헌혈을 해왔다고 하신다. 그 동안 전혈은 50회, 나머지 350회는 성분헌혈을 해왔는데, 전혈이 8주 마다 헌혈이 가능하다면 성분헌혈은 2주 마다 가능해 긴급 헌혈에 대비하기 위해 주로 성분헌혈을 해오셨다. 대신 성분헌혈은 채혈한 뒤 혈액에서 혈장이나 혈소판을 분리하고 남은 혈액을 몸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혈(20~30분)보다 시간이 3~4배나 걸린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자주, 한결 같은 마음으로 헌혈에 진심이었던 장로님은 400회가 오기까지 현재는 그쳤지만 연동교회가 오랫동안 연 2회, 교회 내에서 헌혈자를 모집하고 시행했던 덕분이었다고 겸손해하신다.

헌혈과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오래 전 회사 사내 인트라넷에 긴급하게 RH-혈액을 구한다는 내용이 올라와서 헌혈했는데, 내출혈 환자라 아무리 혈액을 공급해도 지혈이 안되어 결국 생명을 잃어서 그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한다. 이처럼 언제, 누가 자신의 혈액을 구하게 될지 몰라 늘 건강한 신체와 컨디션 관리를 위해 애써오셨는데 70세가 되면 더 이상 헌혈을 받아주지 않아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때라고 웃으셨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건강 검진 결과가 예전 같지 않아 요즘엔 헌혈을 줄이고 있는데 이때 400회 축하를 받게 되어 속스럽다는 장로님, 긴급하고 애타게 혈액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 피를 내어줌으로 그동안 타인에게 생명줄이 되어준 장로님을 크게 칭찬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레17:14) / 박현미 편집장

10, 11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9	21일(토)	어린이 YD페스타(초청 : 웅알스)
	22일(주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오후 4시, 본당)
	24일(화) - 26일(목)	제109회 총회(장소 : 창원양곡교회)
	27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7일(금) - 28일(토)	장년부 영성수련회(장소 : 강화수양관)
	29일(주일)	서울노회남선교회연합회 제3회 찬양대회(오후예배시, 본당)
10	2일(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마태수난곡, 수요기도회시, 본당)
	3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헬예배실)
	5일(토)	청소년 YD페스타(초청 : 마커스워십)
	6일(주일)	성례주일, 세례·입교식(2부예배시) 계일학술세미나(강사 : 안교성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오후예배시, 본당)
	7일(월) - 12일(토)	130주년 특별새벽기도회
	13일(주일)	통일학술세미나(강사 : 정진호 교수/포항공대, 오후예배시, 본당)
	16일(수) - 18일(금)	130주년 말씀사경회(강사 :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19일(토)	장년 YD페스타(초청 : 남진 장로)
	20일(주일)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주일 창립 130주년 기념음악회, 계일문화상, 송암봉사상 시상, 130인 엮음 필사성경 헌정식(오후 3시, 본당)
	24일(목) - 25일(금)	제207회 서울노회(장소 : 예능교회)
25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7일(주일)	찬양예배2(오후예배시, 본당), 당회(오후예배 후, 위즈덤하우스)	
11	1일(금) - 2일(토)	중보철야기도회(장소 : 강화수양관)
	3일(주일)	제직회(4부예배 후, 본당)
	10일(주일)	일대일 수료예배(오후예배시, 본당)
	14일(목)	수능 수험생 기도회
	17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축하음악예배(오후예배시, 본당)

페루 - 겨울성경학교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



8월 1~4일 4일간 루스 데 아모르 교회에서는 겨울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저희 셀라팀에서 제작했었던 어린이 사영리 전도지 내용을 바탕으로 “4일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성경학교 교재(3-5세, 6-8세, 9-11세, 12-14세)를 제작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아이들이 4일의 성경학교 기간 동안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 동네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초대장을 나누었고, 교사들은 주중에 모여 함께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약 180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여 성경학교를 하나

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 - Être et Avoir en Jesus Christ 학교 완공 김정남, 박소현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와 소유가 예수님 안에’ 학교의 모든 교실이 완공되었습니다. 유치원 3반, 초등학교 6반, 교무실 그리고 도서관까지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순조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많은 분의 기도와 눈물로 그리고 헌금을 통해 세워진 ‘존재와 소유가 예수님 안에’ 학교가 그 이

름처럼 이곳을 통해 길러지는 많은 학생들이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학생들의 부모님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스위스 - 비전트립 김명환, 권선중 선교사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한국교회의 대학생 비전트립 팀이 스위스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워십댄스, 부채춤, 독일어 찬양, 인형극, 한국 음식 등으로 잔치를 준비해 마을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왜 왔어요?”,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멋진 잔치를 베풀어주나요?”라고 물으면 교우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자기 돈을 들여 이 먼 곳까지 온 거래요”라며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또한, 인도 출신의 편집장은 양로원 ‘워십 콘서트’를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로 보도하였습니다. 힌두교도인 편집장이 복음 선포와 축도 장면이 들어간 기독교 행사 소식을 신문에 실은 것을 본 인도 출신의 교우는 기사 자체가 기적이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 로즈마리 워 여사님 댁 방문 송요한, 이필잎 선교사



게일 목사님의 손녀이신 워 여사님의 초대로 워 여사님 댁에 방문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 성령 안에서 교제가 풍성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에는 연동교회 세계선교부 정영희 권사님이 보내신 말씀 족자를 선물로 들고 방문하였습니다. 게일 목사님처럼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은 워 여사님은 한글로 쓰인 말씀 선물을 받고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콜롬비아 - 꿈들의 집 박재현, 정은실 선교사

빈민과 난민촌 학교인 '꿈들의 집'의 '꿈'은 구약의 요셉, 형제들에게서 버려졌으나 주님이 주신 꿈으로 총리가 된 요셉의 꿈을 의미합니다. 이곳 아이들의 부모들은 세 가지 직업군에 속합니다. 쓰레기 수집, 일용직 노동자, 오토바이 택시 운전입니다. 이런 부모님들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20분도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꿈들의 집' 아이들은 40분 동안 앉아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세습되는 가난'을 벗어날 가능성을 지닌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어 이곳을 벗어나 더 좋은 곳에서 살며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모든 사역이 끝났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나 김장환 목사님처럼 가난을 이겨낸 지도자가 나온다면 너무 기쁠 것입니다.

태국 - 이주민을 위한 삼겹살 파티 서경석, 박형경 선교사

치앙마이에 위치한 북한 이주민 센터에서 이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고된 삶을 뒤로 하고 험난한 여정을 통해 이곳까지 온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삼겹살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겹살을 준비해 함께 고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어려운 길만큼, 앞으로는 따뜻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멕시코 - 비자 문제 해결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종교 비자를 성공적으로 갱신했고, 아이들은 마침내 임시 거주 비자를 받았습니다. 원래 종교 비자는 매년 갱신해야 하지만, 이번에 신청할 때 이민국 직원이 '몇 년짜리 비자를 신청할래요?'라고 물어보길래, 최대 3년짜리 비자가 가능하냐고 문의했습니다. 직원이 서류 몇 가지만 추가로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급히 멕시코시에 있는 한인 공증 번역사를 통해 서류를 공증받아 신청했고, 덕분에 3년짜리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진 만큼 비자 비용은 올랐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비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5월의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 여름 수련회



8월 24(토)~25(일) 양일간, 포천 지역의 내촌 은혜수련원에서 중국어예배반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첫날에는 말씀 집회를 통해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강사님을 통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구원과 복음적 삶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참석자들 모두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소원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날에는 주일 예배 후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자리를 옮겨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푸르른 자연 속에 발을 담그고 풍경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부족한 것 없이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으며, 각자가 가진 오병이어의 작은 진심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중국인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꾸준한 전도 활동을 통해 중국 유학생들이 연동에 초청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기도한다.

/ 백현홍 성도(중국어예배반)

망상 해변에서의 팀 빌딩과 세례식

7월 21일(주일), WIN-Seoul은 또 하나의 축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른 새벽, 우리는 강원도 망상 해변으로 팀 빌딩과 세례식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연동교회 다문화선교팀의 도움으로 우리는 목적지까지 왕복 차량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많이 내렸지만, 감사하게도 그날은 완벽한 날씨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비가 내렸으나 이후 시원한 바람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팀 빌딩을 위한 이상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해변에서의 하루는 찬양과 경배로 시작되었으며, 아벨 목사님의 예레미야 5:22-23 말씀으로 짧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세례식이었으며, 6명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으며,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빌딩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한 모든 팀들은 '성장, 희망, 팀워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화합과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며 건강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천 마디 말을 한다는 말처럼, 그날 찍힌 사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늘과 바다는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만족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광활한 바다와 그로부터 발산되는 평화, 그리고 쾌적한 하늘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의 영광과 위엄을 말해 주었습니다. 팀 빌딩 활동의 절정은 다음 주일에 열린 시상식이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30만 원과 함께 리프팅 크림 박스를 기부해 주셔서 모든 참가자와 일부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가 이 활동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 글: Abel Raby 목사, 번역: 주태성 기자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4	구원구원! 우리는 라파키즈(막2:5)	여름성경학교
	21	9191! 우리는 라파키즈(막2:5)	7월 생일축하(김다희, 김다윤, 이시은)
	28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행16:14)	말씀집중주일
8	4	나는 예배해요(요4:24)	말씀놀이(기도손, 성경책 만들기), 가정예배 안내(여름성경학교 후속프로그램), 송태오 어린이 가정 축복(미국 출국)
	11	나는 찬양해요(사43:21)	유아부 전도사님 설교 & 핸드벨 찬양, 8월 말씀송&새로운 찬양 배우기
	18	나는 기도해요(눅11:9)	말씀놀이(기도 방식 만들기)
	25	나는 헌금해요(막12:44)	말씀집중주일
9	1	말씀대로 주일을 지켜요(창2:3)	말씀놀이(9월 가정 예배지 배부)

/ 박윤신 부감



8월 가정예배지 배부 및 가정 예배 안내



성경책을 보아요



생일 축하(김다윤, 김다희)



유아부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말씀 시간



함께 기도하는 영아부

< 유아부 > 부장 : 천재운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4	9191(구원구원)! 우리는 라파키즈!(막2:5)	요리활동(키위 거북이만들기)
	21	예수님의 제자, 바울(고전11:1)	볼풀공 만들기
	28	예수님의 제자, 루디아(행16:14)	반별 말씀암송
8	4	예배하는 제자(요4:24)	8월 생일파티
	11	찬양하는 제자(사43:21)	공과활동 만들기(약기만들기)
	18	기도하는 제자(눅11:9)	공과활동 만들기(기도하는 손)
	25	헌금하는 제자(막12:44)	반별 말씀암송
9	1	말씀대로 주일을 지키는 제자(창2:3)	9월 생일파티

/ 정윤정 부감



요리활동(키위 거북이만들기)



반별 말씀암송



볼풀공 만들기



기도하는 제자



생일축하파티

< 유치부 > 부장 : 배광미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4	여름성경학교 9191! (구원구원) 라파키즈!(막2:5)	신나는 여름성경학교
	21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고전11:1)	재미있는 공과
	28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제자, 루디아(행16:14)	말씀암송대회
8	4	예배하는 제자 (요4:24)	생일잔치, 교사월례회 (7월)
	11	찬양하는 제자 (사43:21)	악기 놀이 활동
	18	기도하는 제자 (눅11:9)	재미있는 공과, 교사월례회(8월)
	25	헌금하는 제자 (막12:44)	말씀암송 잔치, 어와나 개강
9	1	주일을 지키는 제자 (창2:3)	9월 말씀송 배우기

/ 최정미 교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헌금을 드려요



생일 축하해요



하나님이 주신 멋진세상 깨끗하게 잘 보존할게요^^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4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 (행 3:4-15하)	반별 공과활동
	21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 (고전 11:1)	반별 공과활동, 교사 월례회
	28	여름 성경학교 "SOS, 라파 구조대"	강화수양관 여름성경학교
8	4	예배하는 제자 (요 4:24)	반별 공과활동, 8월 생일잔치
	11	찬양하는 제자 (사 43:21)	반별 공과활동
	18	기도하는 제자(눅11:9)	반별 공과활동, 교사 월례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평가회
	25	헌금하는 제자(막12:44)	반별 공과활동
9	1	주일을 지키는 제자 (창 2:3)	반별 공과활동

/성창원 교사



반별 공과활동



유년부 찬양대



어린이 대표기도



즐거운 찬양운동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4	24-28-행3 (행3:15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21	BIBLE IN터뷰! (고전11:1)	공과공부, 여름성경학교 신청
	28	#예수스타그램 #TBT #OOTD (행16:14)	여름성경학교(26~28일, 장소: 강화수양관)
8	4	우물가의 알송달송 대화 (요4:24)	1일 : 전국 어린이대회(미래를 사는 교회/ 경기도 하남시) 4일 : 전국 어린이대회 시상식
	11	살므로 드리는 찬양 (사43:21)	"에어바운스의 날 2" 행사 참여
	18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눅11:9)	공과공부
	25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막12:44)	7월·8월 생일자 축하
9	1	특명! 주일을 지켜라! (창2:3)	공과공부

/ 양진실 기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전국 어린이대회 참가



전국 어린이대회 시상식



7월·8월 생일자 축하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4	여름 어린이부 활동 (AWANA 방학) "마땅한 모습" (요1 4:11)	찬양 / 예배 / 게임 (공주머니 게임 등) 교사 릴레이 기도회 시작 (부감님의 쾌유 및 교사들 기도제목 나눔)
	21	여름 어린이부 특별활동 (젠탱글 Zentangle, 만들기)	이학주 집사님의 인도로 미술작품을 만들기
	28	유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로 휴무	
8	4	여름 어린이부 활동 (AWANA 방학) "마땅한 모습" (요1 4:11)	찬양 / 예배 / 게임 AWANA 2학기 모집 시작 (유치부 방문)
	11	에어비운스 운영 휴무	AWANA 2학기 모집 시작 (유년부, 초등부 방문)
	18	여름 어린이부 활동 (AWANA 방학)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시 119:16)	찬양 / 예배 / 게임 AWANA 2학기 개강준비 (2학기 모집완료 49명)
	25	AWANA 2학기 개강 예배 "AWANA란?" (딤후 2:15)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9	1	AWANA 2학기 2주차 "거룩하라" (레 19:2)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 윤종훈 부장



이학주 선생님과 함께 젠텐글 활동



어와나 2학기 개강



어와나 이어달리기



어와나 2학기 단체사진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4	당신은 좋은 제자입니까?(행3:11-15)	수련회 찬양팀 연습, 선교비전트립 설명회
	21	제자, 온전한 섬김 (행20:17-24)	수련회 찬양팀 연습, 선교비전트립 마지막 모임, 선교비전트립(7/22-8/1)
	28	섬김의 주인공(행16:11-15)	수련회 준비모임, 주찬양대 나들이, 선교비전트립 팀 라파에트 예비뉴 장로교회 방문 및 특송
8	4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4:19-24)	8월 생일축하, 여름 수련회 안전교육, 여름 수련회(8/9-11)
	11	힐링 핫플레이스, 십자가사(53:4-5)	여름 수련회
	18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눅11:1-13)	교역자 휴가(오한빛 목사님 설교), 학생 전체 모임 및 수련회 평가 나눔회
	25	현금을 통한 고백(막12:39-44)	세례입교 신청자 모집
9	1	주일을 왜 지켜야 할까?(창2:1-3)	세례입교 신청자 모집, 다친 친구 응원 영상 촬영

/ 권광호 전도사



기대되는 여름 수련회



중등부 주찬양대 식사



여름 수련회 안전교육



중고등부 선교비전트립



친구응원 영상 촬영



라파에트 예비뉴 장로교회 주일 예배 특송



수련회 준비 작업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7	14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행3:11~16)	선교비전트립모임, 떡볶이 파티 찬양팀 수련회(13~14일)
	21	풋대를 향하여(행20:17~24)	교사월례회(20일,토)
	28	섬김의 주인공(행16:11~15)	선교비전트립(7/22~8/1, 미국&캐나다)
8	4	천로역정 : 천국을 찾아서(히11:16)	8월 생일자축하, 영화감상 (천로역정)
	11	좁은 문으로의 부르심(마7:13~14)	여름수련회<천로역정: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일정: 8월 9일(금)~11일(주일), 총 51명 참석(학생 24명, 교사:17명, 봉사자:10명)
	18	기도하고 있나요?(눅11:9)	장판규 전도사님 말씀
	25	두 랍돈의 비밀(막12:41~44)	위임목사님 순회예배, 위임목사님과 함께하는 공과 (가치경매)
9	1	주일성수의 참된 의미(창2:1~3)	9월 생일자 축하, 2학기 반편성

/ 이승원 부감



떡볶이 파티



2학기 반편성



위임목사님 순회예배-가치경매



위임목사님 순회예배



찬양팀 수련회

우리는 영아부 라파키즈!

주제 : 9191(구원구원) 라파키즈 (시30:2)

일시 : 7월 13(토), 14(주일)

장소 : 가나의 집 3층 영아부 예배실

참석자 : 학생 10명 / 교사 8명과 보조교사 2명(송예리, 신혜경)

첫째 날, 미리 모인 교사들은 교역자들과 강로님들이 함께 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일정을 점검한 뒤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시간이 되자 모인 아이들은 등록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예배실에 모여 여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반별 공과와 특별활동을 한 뒤 영아부 김진 지도권사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 지도권사님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맛있는 오므라이스와 특별 메뉴를 함께 나누었다. 둘째 날, 주일 예배 말씀은 교사들이 연극으로 준비하였다. 특별출연으로 김이안 어린이의 아바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연극을 완성하였다. 예배 후 특별활동을 함께 하며 하나님의 라파키즈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성경학교를 마무리하였다.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해주신 분들, 함께 성경학교에 참여하여 섬겨주신 모든 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박윤신 부감



라파키즈 포토존



라파키즈 탐험대-예수님 목걸이 찾기



라파키즈 탐험대-풍선 통과하기



라파키즈 탐험대-촉감 발판 지나기



지켜요. 깨끗한 세상-쓰레기 건지기



지켜요 깨끗한 세상-분리수거하기



우리는 연동 영아부 9191 라파키즈

9191 라파키즈! 유아부

주제 : 9191(구원구원)! 라파키즈!

일정 : 7월 13일(토) 오전10시 - 오후 2시30분

7월 14일(주일) 오전10시 - 오후 12시30분

장소 : 가나의 집 2층 유아부실

참석 : 학생 19명/교사 14명

봉사자 : 한정호 집사

유아부 모든 친구들의 기도제목을 받아 선생님들과 나누며 릴레이 기도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내용은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과 찬양으로 몸으로 익히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부모님과 떨어지기 어려운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조금은 안정감 있게 스스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늘 아이들을 위해 봉사와 기도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 안전하고 은혜롭게 성경학교를 마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윤정 부감



키워거북이 만들기



파라슈트 물방울놀이



라파키즈 자동차목걸이 찾기



코너학습



즐거운 수영시간



단체사진

여호와 라파! 유치부 키즈들

주제 : 9191 라파키즈

일정 : 7월 13일(토) ~ 14(주일)

장소 : 연동교회/가나의 집2층 유치부실

참석 : 학생 23명/교사 11명

봉사자(식사준비) : 김명자 권사, 김은실 집사, 최은복 권사

부교사 : 주성경, 주보경, 최누리, 성창원, 오영순, 한복영

◆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키즈!

우리 귀한 유치부 친구들이 병들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잘 자라길 기도하며 준비한 '여름성경학교', 친구들과 만큼이나 교사들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최정미 교사



우리는 라파키즈!!



예수님~ 우리 친구를 고쳐주세요.



신나는 물총 놀이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세상, 깨끗하게 잘 사용할게요.



유치부 단체사진

우리는 라파구조대, 유년부

주제 : SOS! 라파구조대!

일정 : 7월 26일(금)~28(주일)

장소 : 강화수양관

참석 : 학생 31명 / 교사 21명

봉사자 : 양연화 권사, 문훈애 권사, 고수경 권사, 조수남 권사, 박경숙 권사, 박영란 집사, 이경희 집사, 김민성 청년, 윤현중 청년, 성유경 청년

유년부 아이들은 여름성경학교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성경학교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통해 더욱 따뜻한 공동체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큰 사고 없이 좋은 환경과 날씨 가운데 성경학교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신유진 전도사



신나는 찬양운동



즐거운 물놀이



시상식



예배 준비



공과시간



유년부 단체사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초등부

주제 : SOS! 라파 구조대

일정 : 7월 26일(금) - 28(주일)

장소 : 강화수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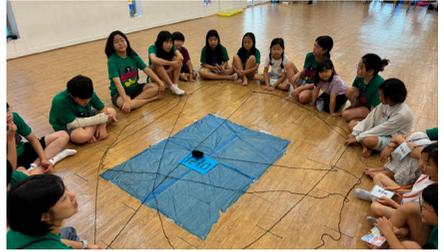
참석 : 학생 43명 / 교사 17명

봉사자 : 김현정 집사, 김완희 집사, 정주은 집사, 양진실 집사, 김승규, 유찬, 백진주, 조관우, 김찬미, 박예송 청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름 성경학교로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같은 부서 친구들과도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해주신 부장님, 선생님들, 식사와 간식으로 섬겨주신 권사님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섬겨주신 청년 선생님들, 방문해주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또 기도와 봉헌으로 도움 주신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조준용 전도사



친구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찬양해요!



유년부 동생들과 함께한 프로그램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센터학습을 했어요!



청년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물놀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회



방문하신 목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단체사진

은혜가 넘쳤던 여름 수련회, 중등부

주제 : 힐링을 찾아 떠나는 여정, 마침내 도착한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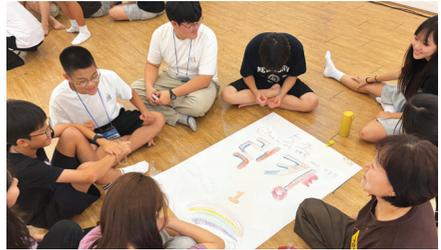
일정 : 8월 9일(금)-11(주일)

장소 : 강화수양관

참석 : 학생 37명 / 교사 27명

봉사자 : 김옥남 지도권사, 방영민 장로, 손옥분 권사, 정금실 권사, 김동열 집사, 성마루별, 신연숙, 김한결, 김찬미, 서유니, 김건우, 김도환 청년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힐링 핫플레이스’ 라는 주제로 시작된 여름수련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마치는 시간까지 감사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 관심과 기도를 통해 진행된 여러 일정들이 순적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더욱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모습, 예배로 기뻐 뿜어 찬양하는 모습,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등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크게 느끼고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였다. 또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기도한다. / 권광호 전도사



조 이름, 구호 정하기



신나는 공동체 프로그램



시원하고 즐거운 물놀이



조별 게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등부 단체사진

좁은 길 하지만 옳은 길, 고등부

주제 : 천로역경 :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일정 : 8월 9일(금)~11일(주일)

장소 : 충주 총회농촌선교센터

참석 : 학생 24명, 교사 17명, 봉사자 10명 (총 51명)

봉사자 : 김영애 집사, 김종은 집사, 이대진 집사, 이은영 집사, 전관우 집사, 조형욱 집사, 최은숙 집사, 황보성목 안수집사, 이주영, 최승렬 청년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은 신앙생활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깨닫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기로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이승원 부감



중독의 길-중독 강의



구원의 길-저녁집회



구원의 길-저녁 집회1



천로역경 파트1-발아구



시험의 길-아침말씀묵상



고등부 단체사진

주니어앙상블 여름캠프

주니어앙상블(단장 김선일 집사, 지휘 김진한 집사)은 8월 1일(목)부터 8월 3일(토)까지 양평 코리아뮤직파크에서 2박 3일간 주니어앙상블 여름캠프를 진행하였다. 첫째 날, 연동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타고 출발한 단원들(9명)은 설레는 마음으로 양평에 도착했다. 도착 후 숙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앙상블 연습을 통해 다 함께 음악을 맞추었다. 앙상블 연습 후 파트별로 나누어 그룹 레슨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선배 단원들(5명)이 함께 참석하여 어린 후배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었다. 숙소에서 석식 후 앙상블 저녁 연습을 시작했다. 앙상블 연습 후 간식, 보드게임, 파리 올림픽 응원 등을 하며 즐거운 자유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아침 식사 후 단원들과 함께 QT를 한 후 본격적인 앙상블 연습을 가졌다. 단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 연습에 몰입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오후에는 물놀이를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학부모들(6명)이 협력하여 BBQ 파티가 열렸고, 풍성한 식사와 더불어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식사 후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와 점심 식사 후 해산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찬양과 연습뿐만 아니라 교제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 주태성 기자



제33회 전국 어린이대회



제33회 전국 어린이대회가 8월 1일(목) 미래를 사는 교회(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여는 예배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강자들'이라는 제목(행 13:36)으로 김권수 목사(총회 교육부장)의 설교가 있었다. 연동교회는 성경고사와 찬양울동 종목에 강북협의회 대표로 총 12명이 참가하여 전원 입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5월 11일(토)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와 6월 6일(목) 서울시어린이종합대회에 이어 이번 전국 어린이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들, 부장·부감님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하며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 대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전국 어린이대회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양진실 기자

종목	부서(학년)	이름
성경고사	유년부(1학년)	박호준(동상)
	유년부(2학년)	박혜빈(동상)
	초등부(4학년)	박윤아(동상)
	소년부(5학년)	김성준(동상)
찬양울동	초등부(3·4학년)	김선, 김소연, 박소은, 한나은(은상)
	소년부(5·6학년)	김유진, 남다혜, 경하울, 홍다혜(은상)

‘에어바운스의 날 2’ 행사



8월 11일(주일) 영아부부터 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어바운스의 날 2’ 행사가 가나미집 열림홀에서 있었다. 지난 6월 23일(주일)에 처음 진행했던 ‘에어바운스의 날’이 성황리에 끝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한 번 더 열었으면 하는 요청이 많았다. 또한 여름성경학교 이후 친해진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나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날도 연령별로 나누어진 두 개의 에어바운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놀면서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 양진실 기자

130주년 말씀 사경회 안내

일시: 10월16(수) ~ 18일(금) 19:30

강사: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담임목사)



조정민 목사

10월 16일(수)~18일(금)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신앙사경회가 열립니다.

이번 신앙사경회는 특별히 연동교회 130주년 창립기념을 맞아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담임)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합니다.

조정민 목사는 언론인 출신 목사답게 똑부러지면서도 이해가 쉬운 설교로 유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목사 중 한 사람으로 쉼 없이 넘어 뒤늦게 목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 말씀에는 깊이 있는 통찰과 삶의 경험이 녹아 있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연동의 성도들이 새롭게 신앙을 다시 다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박동진 기자

주님의 은혜로 일상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길 원해요!



임현숙 성도(은평구역)

2023년 4월 16일에 등록하였습니다. 미션스쿨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평화를 얻은 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를 다녔지만 인생의 굴곡으로 한동안 쉬다가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성령의 감화를 기도하는 임현숙 성도(50대)를 소개합니다.

Q.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대부중을 다니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하며 종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잇고 살다가 40대에 또다시 인생의 위기가 오고 힘들 때 분당우리교회를 우연히 다니게 되었어요. 말씀이 주는 위안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불광동으로 하게 되면서 전 교회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후에 우연히 가까이 사는 친구를 통하여 연동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가 오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기독교인이지만, 다행히도 교회 생활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현재의 연동교회를 출석하게 된 지금까지의 지나 온 과정들이 결코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새신자 입장에서 연동교회 목회자나 교인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김주용 위임목사님의 솔직하고 따뜻한 설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내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다른 교회보다 조용하고 엄숙하며 때론 활기찬 예배시간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때론 현 사회를 비판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잇고 지내던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성경을 읽고 마음에 담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Q. 연동교인들과 나누고픈 기도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의 두 아들이 직장생활 잘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를 기도합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 계획 또는 교회에 관심 분야를 나눠주세요.

지난 10여 년 이상을 역사강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보육교사로 새로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모습 그대로의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배우고 지냅니다. 앞으로도 몸이 허락하는 한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보살피고 가정일에 성실히 지내고자 합니다. 또 여력이 주어진다면 교회의 모임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매주 연동교회를 가면서 마음의 욕심과 허상을 비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참된 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에게 나누어 주셔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8월 4일(주일) 새로 부임하신 김환 목사님을 교인들께 소개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연동교회에 오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연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부족한 저에게 연동교회 부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연동교회에서 섬기게 된다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동료 사역자로 만나 부부가 된 아내(김지영)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매년 수능40일 목상집을 만들었는데, 집필진을 구성하면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를 포함시켜 함께 목상집을 만들며 1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아내는 음악과 예술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는 놀이터이자 꿈을 키우는 공간이었습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의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나도 커서 아빠처럼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설교를 흉내 내며 놀던 저를 할머니께서는 '꼬마 목사라 부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삶과 할머니의 축복 속에 자라며 무의식 속에 '목회는 좋

은 일이야. 나도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절 저는 깊은 신앙적 방향을 겪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겉으로는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가득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괴로웠고 목회자의 꿈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에 참석하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철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았던 일상에 생명수가 흐르듯 기쁨과 감사가 샘솟았습니다. 저는 이후로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도록 돕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와 동행함으로 꽃길처럼 걸어가도록 돕는 목회자가 되는 게 제 목회철학입니다.

목사님의 전공과 관심 갖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기며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기록한빛광성교회를 통해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평신도 중심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안내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천신학 분야 중 사회적 목회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연동교회에서 맡으신 사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4교구와 문화선교부, 새가족부, 방송실을 맡고 있으며 주일에는 4남녀선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미디어 사역을 전반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과 사역의 방향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연동교회와 교인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동교회를 통해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와 연동교회 성도들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소망 없고 어두웠던 시절,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며 민족의 기쁨이 되었던 연동교회의 찬란한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연동교회의 아름다운 여정에 저 또한 작은 밑일이 되어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힘을 모아 연동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도록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종원 청년의 손글씨가 글꼴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남태준(왼쪽)씨와 연동교회 하이청년부 이종원(오른쪽) 성도가 자신의 손글씨를 본뜬 글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종원 성도(하이청년부)의 손글씨가 글꼴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이종원 성도는 현재 대우건설 소속 풋살선수로 뛰고 있는 자립 청년이다. 그는 삶과 글씨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해오고 있는데, 처음 만나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밝게 인사하는 그의 수첩에는 매일 정성껏 기록된 글씨가 아름답게 정렬되어 있다.

이종원 성도는 최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성북'과의 협업을 통해, 손글씨를 글꼴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그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으로, 그의 글씨체는 '피플퍼스트 또박체'라는 이름으로 6월 27일 공식 출시되었다. 이를 위해 2,780자의 한글 손글씨를 직접 써야 했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2년 7개월 만에 글꼴로 출시되었다.

'피플퍼스트 또박체'는 획 끝이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워 본문에서 사용하기 좋다. 특히, 장애 혐오 단어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될 수 있는 편견과 혐오를 없애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 박동진 기자, 참고 : 8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https://v.daum.net/v/20240828000153948>)

아름꿈방 도서관 “책바자회+기부” 행사



아름꿈방 도서관(관장 강희숙 권사)에서 기획한 “책바자회+기부”행사가 8월 18일(주일)부터 9월 8일(주일)까지 교회 마당에서 총 4주간 동안 진행되었다. “책바자회+기부” 행사는 주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집에서 보지 않는 깨끗한 책들을 기증받고, 필요한 책을 1~2천원에 판매해 그 수익금을 주일학교 이름으로 기부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또한 깨끗한 책들이 바로 폐지로 버려지지 않고 다시 읽을 수 있는 친환경 활동으로, 연동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책을 나누는 선순환(善巡還)의 취지가 있다.

8월 18일(주일)과 25일(주일)에 기증받은 책들이 거의 1천여 권이 되었는데, 깨끗하고 내용이 좋은 유아책 및 동화책들과 풀지 못한 중고등학생 문제집 등이었다. 9월 1일(주일)과 8일(주일) 두 주간 동안 800권이 넘는 책을 팔았고,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책도 사고 기부에 동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유아책들은 소독기를 비치하여 책을 소독하여 판매한 것도 반응이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책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행사의 좋은 취지를 위해 기부금을 내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셨다. 모아진 수익금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책바자회+기부” 행사에 참여해주신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양진실 기자

상반기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정민 장로)는 7월 21일(주일)부터 8월 18일(주일)까지 5주간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하우스에서 2024년 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감사의 대상은 제직회 각 부서 및 자치기관이 포함된다. 이번 감사의 의견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모두 적정으로 판단되었

으나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을 지양하고 적격 증빙자료를 통해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사업의 예산수립 시 대상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게 예산을 배정할 것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다. / 박윤신 기자

본당 악기 재배치



오르간 재배치 전의 강단 전경



재배치 전 강단 위 찬양대석 옆의 오르간



오르간 재배치 후의 강단 전경



재배치 후 강단 아래 위치한 오르간

7월 21일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연동교회 본당 우측 강단 위에 있던 오르간이 강단 아래 좌측으로 재배치되었다. 7월 28일 주일 예배는 오르간이 찬양대석 옆 강단 위가 아닌, 강단 아래 좌측 트리니티 찬양팀 앞에 배치된 상태에서 드려졌다. 본당 악기 재배치는 강단 리모델링 작업의 일환으로, 강단의 개방감을 높이고 예배의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오수희 기자

본당 강단 공사 완료



공사 전



공사 후

8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본당 강단 리모델링을 위해 설교강단 해체와 강단 계단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진행했으며, 9월 5일(목)에는 강단 조명 교체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강단에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리모델링 후 회중석 바닥보다 살짝 짙은 베이지색으로 바뀌어 더 밝고 환한 강단이 되었다. / 김중은 기자

제4여전도회 여름 수련회



8월 30일(금)부터 8월 31일(토)까지 제4여전도회(회장 김수연2 집사)는 강화수양관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했다. 첫째 날 '회복의 시작(창11:27~12:1)'이라는 주제로 구은수 목사(행복한 교회 & 리딩크 찬양단)의 말씀 선포와 리딩크 찬양단의 리드로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 영성회복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심리 테스트를 통해 관계회복의 방법을 알아보고 '너와 나의 모습'이 챌린지를 통해 율동과 단합의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멋진 카페에서 심과 나눔의 회복을 하며 10년 만에 가진 수련회를 마무리하였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 늦고 토요일 출근 및 개인 일정 등으로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며 주님이 주신 회복에 감사한 시간이었다./ 김수연2 집사(4여전도회 회장)

제3여전도회 선교비 마련 바자회



8월 18일(주일)과 9월 1일(주일) 제3여전도회(회장 김수연1 권사)는 선교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교회 마당과 신협 앞에서 열었다. 8월 18일(주일) 바자회는故김중식 장로님 아들 김선태 성도가 복어채를 후원해 주었고 오징어채를 원가에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판매를 하였으며 9월 1일(주일) 바자회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참기름과 들기름, 참깨, 들깨가루를 판매하여 무더운 날씨였지만 교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3여전도회는 송당교회, 온양농아인교회, 완도죽청교회, 김포연동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 유정원 권사(사업부 부장)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트리니팅 자원봉사자 모임



9월 5일(목) 오후 1시,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종로5가 연동교회 인근의 나무들에 손뜨개 작품을 입히는 트리니팅 모임이 시작되었다.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예장문화법인 허브와 함께 마련한 트리니팅에는 연동교회 교인을 비롯해 21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이날 열린 '2024년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문화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허브 사무총장 손은희 목사는 "크리스마스의

본래적 의미,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화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문화목회활동의 하나로 트리니팅을 기획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해 종로5가 나무 40여 그루에 옷을 입혔는데, 올해에는 리폼 나무 30그루와 신규 나무 26그루에 옷을 입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월 14일(목)까지 총 10회 손뜨개 모임이 진행되며, 15일(금)~20일(수) 나무들에 옷을 입히는 설치작업이 끝나면 28일(목) 제막식과 트리니팅 세리머니가 열리고, 작품은 12월 31일(화)까지 전시된다. 올해에도 춥고 어두운 종로5가 거리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박현미 편집장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 예배



9월 8일(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졌다. 공향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된 5분 30여 초로 편집된 선교 영상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원들의 밝고 선한 모습들이 잘 담겨 있었다. 이어 특송 '나의 피난처 예수(Ku mau cinta Yesus)'를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찬양하였다. 오요셉 & 김찬미 청년은 간증으로 그들의 은혜와 감동을 나누었

고, 특별 순서로 부채춤(곡:나의 피난처 예수)과 K-pop & Worship(곡: Bless Me, 우리 주를 만나고)이 이어졌다. 김주용 위임목사는 말씀 '의도적으로 장벽을 넘어(행4:29~31)'를 통해 장벽, 고난, 대적과 원수는 그것들이 없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겨내고 극복해내며 행복을 찾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안의 강한 의지, 열정, 의도를 가지고 전해지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재정부터 모든 것들을 직접 준비한 청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에서 보여졌다"고 하였다. 말씀 후 청년부를 위하여 연동교회가 이 선교의 열정을 이어가기를 함께 기도한 후 결단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박윤신 기자

연동청년페스타130 2024 YD페스타 이음



9월 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과 교회 마당에서 '연동청년페스타130'이 열렸다. 아침부터 하이청년부 청년들은 마당에서 체험형 부스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는데, 고민 많은 청춘들을 위한 '종리스찬', 음악으로 힐링과 위로를 주는 '음악치료',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컬러 진단', 그림책작가와 함께하는 '책갈피 만들기', 심지에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 등 5개의 부스를 만들어 오전 11시부터 운영했다. 가수들의 초청공연은 본당에서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3시에는 별키, 4시에는 송지은이 출연해 자신들의 삶과 음악을 나누주었다.

이날 열린 청년페스타는 지역 사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행사로, 체험형 부스와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의 무대 등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통해 교회가 세대와 종교를 아우르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서울시 예산 2000만 원을 지원 받아 진행되었기에 지역사회와 교회를 잇고,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의미로 '이음'이 덧붙여진 축제였다.

이번 축제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기 위해 애쓴 심현숙 장로(Hi청년공동체 교장)는 "준비과정에서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하나가 되었고, 최선을 다했고, 많은 하이청년들이 함께했으니 우리 청년들의 성공"이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누구보다 이번 청년페스타 전반을 위해 수고하신 김윤기 목사는 "특별히 올해 아홉 명으로 구성된 청년부 회장단이 일을 참 잘 분담 수고하여 진행"해 주었고, 맡겨진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일단 한 번 맡겼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 주는 모습에서" 크게 감동 받아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별히 리더인 청년 회장에



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교인들께 하이청년들 칭찬을 부탁하였다. 가수 섭외와 행사준비로 애순 박예송 자매는 “모든 계획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하며, 하이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이번 페스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려 감사함을 전했다. / 박현미 편집장

제2남선교회 물놀이행사



8월 31일(토) 제2남선교회는 회원 부부 31명, 타 남선교회 3명과 함께 북한산성 계곡으로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물총 놀이 등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해 간 음식을 먹으며 교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인 가을을 기약했습니다. / 김영복 협동안수집사(2남선교회 회장)

세계선교위원회 실행회의



8월 31일(토)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는 새벽기도회 후 드보라의 방에서 실행회의를 실시하였다. 회계보고 후 선교지 연장 심사를 하였고 대상인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김태환 선교사에 대한 연장 후원을 의결하였다. 연말 연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후원 지역들이 보고되었고 차기 회의시 연장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청년부로부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단기선교 내용을 설명 듣고 계속되는 청년부의 활동에 후원이 필요함을 공감

함과 동시에 세계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장년들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9월 29일로 예정된 하반기 세계선교위원회 특별봉헌을 위한 준비를 토의하였고, 선교지에 대한 집중 후원 프로그램인 원 포인트 프로젝트 재개와 후원지에 대한 현장 방문, 제 규정 보완 등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후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쳤다.

/ 윤종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유아세례



8월 25일 주일 2부 예배

하준수(남, 2020년 1월 20일생)

하태웅 성도, 진서청 성도의 아들/ 성북1구역
하영호 성도, 송경옥 은퇴협동권사의 손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준수가 주님 안에서 자신과 남을 사랑
할 줄 아는 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약속을 잘 지키는 아
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바르고 건강한 아이
로 자라게 해주세요.



교회 첫 출석 아기



9월 1일 주일 3부 예배

최서준 아기(남, 2024년 5월 10일생) 최용석 성도, 이지은 성도의 아들/ 잠원반포구역

이준형 성도, 김수정 집사의 외손자

엄마, 아빠는 서준이가 사랑을 자유로 행하고 자유를 사랑으로 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고 나아가 그 자유는 믿음이 본 바탕이
어야 한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할테니까, 우리 가족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
게 살자~!!

새가족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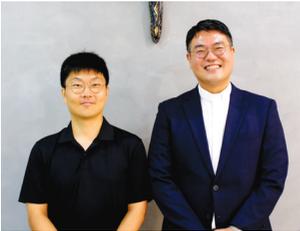
곽미순(2교구 성북1구역)



권효은-강창수(2교구 동대문구역)



김가호(청년부)



김민수(1교구 구리남양주양평구역)



이호숙(3교구 서초방배구역)
이낙원(1교구 쌍문구역)



최은서(3교구 영등포구로구역, 청년부)



하지원(4교구 길음구역)



한이재-이인남(3교구 효제구역)



박동진 신입기자를 소개합니다!

9월호 '연못골'에서 연동교인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박동진 기자(쌍성연동04구역)를 소개합니다. 박동진 기자는 밝게 웃으며 "도시락 남는다고 '연못골' 엠티 갔다가 인연이 되 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고 기자 된 소감을 밝혔습 니다. 앞으로 '연못골' 지면을 통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펼쳐갈 박동진 기자를 관심 갖고 응원해 주세요~!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기식 장로)

■ YD러브릿지센터(청년관) 청년 주거복지시설 정상 운영 중(10명), 발달장애 아동 1명 교육비 지원 중(추가 아동 선별 중)

■ 연동복지재단 사업 안내 : ①다문화 복지팀 : 중국어예배반 한국어 교육 중 (1명),

②러브릿지 “溫(ON)” : 연동복지재단, 연동교회 청년부, 연동 신협이 주관하여 서울 5대 쪽방촌 중 가장 규모가 큰 창신동 쪽방촌에서 창신동 쪽방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이 필요한 50가구에 생필품 및 식사 지원 진행 중(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러브릿지 “溫(ON)”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7~8월 매주 일요일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의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 지난 7월 27일(토), 8월 31일(토) 각각 7,8회 러브릿지 “溫” 캠페인이 있었다. 쪽방촌에서 요청한 생필품과 의약품을 전달하였다. 당일 봉사자들을 위한 간식과 음료 후원, 또 무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과 후원금을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동복지재단은 긴급 지원과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활동을 주변 민관기관과 협력해 나아가려 한다.

※ 러브릿지“溫”은 창신동 쪽방상담소에서 매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와 물품을 조사하고, 연동복지재단이 검토하여 물건을 구입하며, 연동신협과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후원, 연동교회 권사, 집사님들의 도시락 준비, 연동교회 청년부의 물품 포장 후에 배달된다.
※이 캠페인은 지속적인 봉사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과 사람, 지역사회 간의 연계와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다.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7월 지역사회 “연지 물놀이장 개장”

▶ 7월 11일(목), 15일(월) 종로구 연지물놀이장 홍보영상 촬영 및 개장식에 연동어린이집이 초청되어 푸른,하늘반(만2세)과 지혜반(만3세) 아이들이 다녀왔다. 홍보영상 촬영을 하며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개장식에는 학부모님들과 종로구 구청장님을 비롯해 지역 인사분들도 참석하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7월 “여름방학 물놀이 캠프!!”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7월 26일(금) 여름방학을 맞이해 홍천으로 여름캠프를 다녀왔다. 교육적 요소와 아동의 필요에 맞춰 곤충박물관과 사계절 썰매장을 캠프 장소로 택했다. 여러 곤충들을 접해보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생명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맛있는 간식을 나누고 물놀이를 함께 하며 학업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연동실버아카데미(원장 김남순 권사)

▶ 9월 4일(수) 연동실버아카데미 하반기 수업을 개강하였다. 특성화된 6개 반(건강체조, 폰과함께, 몸다스리기, 꽃색연필화, 노래와즐거움, 종이접기)과 미미용 봉사가 함께 하며, 적극적인 사회의 홍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9월 중 가을소풍, 11월 강강밭 표회도 계획 중이니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협 현황

(7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10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 부채	합계
	5,287,589	38,938,164	1,960,086	946,047	47,131,886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0,014,555	678,401	63,667	16,375,263	47,131,886

(8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10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자금	예탁 및 적금	적립금	기타 부채	합계
	5,300,638	38,385,914	2,000,812	977,275	46,664,639
유동 자산	총대출금	투자금	현금	제세금	합계
	31,214,533	702,867	59,807	14,687,432	46,664,639

목양위원회

■ 결혼식

- 김동현(김기형 집사, 진화신 집사 아들/길음구역) 군과 김수화(박희순 성도 손녀) 양 -8월 10일(토) 오후 1시 35분
합정 웨딩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홀
- 이정화(이성기 집사, 이미원 집사 딸/고양구역) 양과 김준현(김중열 님, 김은실 님 아들) 군 -8월 17일(토) 오후 12시 30분
아펠가모 광화문점 2층
- 나중옥(나 건 집사, 이경혜 집사 아들/분당구역) 군과 권예나(권병학 목사, 장성희 사모 딸) 양 - 8월 31일(토) 오후 1시 본 교회당

■ 장례식

- 김중식 장로(장진희 권사 남편, 김선민 집사, 김선태 성도 부친, 배기현 집사 장인, 류 양 성도 시부, 배은지 성도 외조부/장안구역) 별세, 7월 31일 연동동산에 모심
- 유옥슬 권사(김희정 타고권사 모친, 현홍은 성도 외조모/장안구역) 별세, 8월 9일 서울현충원에 모심
- 백중득 성도(백현홍 성도 부친, 이미라 성도 시부, 백예나 성도 조부/삼선구역) 별세, 8월 11일 구미시 추모공원에 모심
- 문정자 성도(김형도 성도 부인/응암역촌구역) 별세, 8월 11일 안산 유평피아추모관에 모심
- 박한영 님(박미경 권사 부친, 윤복기 집사 장인, 윤중훈 성도 외조부/명륜연건구역) 별세, 8월 12일 연동동산에 모심
- 강희태 성도(상계중계구역) 별세, 8월 16일 이천 에덴낙원추모공원에 모심
- 이정운 성도(유옥화 성도 남편/연지구역) 별세, 8월 26일 백합의 뜰에 모심
- 윤윤곤 성도(진필호 명예권사 남편/낙산구역) 별세, 9월 12일 수원승화원에 모심



(이름:

연락처:

소속:

)

6-7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김영복(성북2구역)-9147



나경남(이화)-7844



진예현(초등부)-0117



성열숙(1교구 낙산)-9643

□ 임현정(1교구 낙산)-9643 □ 윤문희(성북2구역)-9147 □ 조선영(명일하남)-7541

*8-9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보내주세요. 추천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연못골 제 56권 616호

-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 발행일 2024년 9월 15일
-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박요한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중은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오수희 이경아 이지원 임채철 주태성
신입 박동진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올 여름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숨 막히게 뿜어내던 태양열이

때를 알아

아침 저녁 바람길을 열어주니

아~ 저 먼데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8-9월호(616호)